



【뉴스】
‘델타 변이’ 공포에
백신 부족 불안감
사전접종 예약 폭주
02



Economy

코스피	3232.70 (-11.34)	코스닥	1043.64 (-6.19)
금리 (미국 3년)	1.410 (-0.049)	환율 (원/달러)	1150.40 (+2.60) (20일)

“유동성 → 실적 장세 중소형·경기株 주목”

삼성, 반도체 이어 스마트폰도 ‘샌드위치’

메트로신문 ‘100세 플러스 포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는 노후대비를 위한 은퇴설계 지형도 바꿔놓고 있다. 3개월 연속 2%대를 웃도는 물가상승률은 은퇴자가 버틸 수 있는 은퇴자금을 잠식하고 있고, 하반기 예고된 금리인상은 노후보장 수단으로 여겨졌던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수익률을 높여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고, 절세 전략 등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00세의 삶이 보편화되는 시대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공적 연금에만 의존하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 따라 은퇴설계 변화
윤지호 “포트폴리오 재편기회 활용”
고란 “가상화폐, 기업 투자처 각광”
호지영 “부동산 절세 방안 모색을”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20일 주최한 ‘2021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웨비나(Webinar)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장수리스크에 대비한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이 제시됐다. <관련기사 L7·L8>

부동산 세테크, 주식-가상화폐의 미래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00세시대에 주식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됐다”면서 “주가가 과하다 싶을 때는 속도조절을, 주가가 빠져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늘려 장기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이번 기회를 포트폴리오 재편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와 경기 재개에 따른 수혜주에 주목해야 한다”며 “하지만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채가 많은 차주는 부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다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란 알고란 대표(전 중앙일보 기자)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는 시대에 디지털 자산(가상화폐)에 대해서 알고 가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20일 주최한 ‘2021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웨비나(Webinar)에서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는 것이 미래 재테크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를 단순히 사기다라고 폄하하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가상화폐가 단순히 지금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는 늘어가고 있다”며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시작에 불과하고, 추후 이를 활용한 여러가지 자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도 제시됐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주택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나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금인 만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 세무사는 단계별로 절세전략을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계별 절세전략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예상되는 보유세를 계산해보고, 주택수 조정시 세금이 줄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후 주택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면, 양도와 증여 중 선택하면 된다.

호 세무사는 “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부담은 늘어나고, 전체 자산증가로 사전증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증여수요가 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급등한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보다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샤오미 폰, 애플 제치고 ‘2위’
삼성과 점유율 차이 2% 불과
메모리도 경쟁사도 추격 속도

삼성전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반도체에 이어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샌드위치’ 신세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경쟁을 뛰어넘을 대규모 투자역량도 충분한 상황이지만, 좀처럼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스마트폰 1위 ‘이슬아슬’

20일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순위는 삼성전자와 샤오미, 애플 순이었다. 샤오미가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오른 것. 2010년 창사 이후 첫 성과로, 전년 동기 대비 83%나 성장했다. 애플(1%)은 물론이고 삼성전자(15%)보다도 높은 수치다.

삼성전자와 점유율 차이도 2%에

불과했다. 삼성전자가 전분기보다 3% 떨어지면서 19%, 샤오미는 17%다.

샤오미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화웨이 부재가 꼽힌다.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신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신 샤오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

실제로 샤오미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라틴아메리카에서 300%, 아프리카에서 150% 이상 많은 출하량을 기록하면서 화웨이 인기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성장을 가속화했다.

삼성전자가 출하량 기준으로는 경쟁사인 애플에 그나마 월등하게 앞서 있던 상황, 이제는 샤오미에 발밑까지 추격당하게 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애플에 크게 열세를 보인다. 1분기 스마트폰 시장 매출 점유율이 애플 42%, 삼성전자는 17.5%에 불과하다.

애플이 프로맥스와 맥스 등 플래그십 모델 판매량이 훨씬 높고, 전체 라인업도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출고가를 낮추면서까지 화웨이와 LG전자가 자리를 비운 중저가 시장을 강화해왔다.

◆ 반도체 초격차도 ‘흔들흔들’

스마트폰 뿐 아니다.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도 경쟁 업계 추적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마이크론이 한발 앞서 4세대 10나노(1a) D램과 176단 낸드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SK하이닉스도 뒤를 따르면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겼다.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지만, 미세 공정 난이도가 크게 올라간 탓에 격차는 훨씬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故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이건희 기증작’이 21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9월2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은 내년 3월13일까지 특별전을 연다. 20일 언론에 공개된 ‘심장생도 10폭 병풍’을 참석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취준생 86만명 역대 최고... 30%가 ‘공시생’

코로나 여파 기업 수시채용 늘어
청년 미취업자 25% ‘그냥 씬다’

취업을 못한 청년 ‘취업준비생(취준생)’ 수가 85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은 취업자 수보다 취준생이 더 늘어나는 형국이다. 취준생 다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기업들이 공개 채용보다 수시 채용을 늘리면서 취업이 불안정해졌고,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448만8000명 중 85만9000명(19.1%)이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 취준생이 8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6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취준생 수 80만4000명을 또 다시 경신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여성은 42만명으로 4만6000명 각각 늘었다.

이들 중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비중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 기업체 준비가 22.2%, 언론사 및 공공기관 11.9%, 교원임용 4.0% 등이었는데 모두 전년보다 비율이 감소했다.

또, 청년 미취업자 4명 중 1명 꼴(25%)로 취업 준비나 직업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씬다’고 답했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청년 취업 준비자 수가 많아진 것은 안정적인 공무원 선호도가 높다는 점과 함께 일반기업에서 공채 대신 수시채용이 많아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공수처, 靑 압수수색... ‘김학의 허위 보고’ 조준
- ▲ 김홍빈 대장 수색 계속... 외교부 “파키스탄 군 헬기 투입” /사진 뉴시스

- ▲ 文 “EU 탄소국경세, 기업 타격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
- ▲ 셀트리온, 삼바에 코로나 치료제 위탁생산 맡긴다



- ▲ ‘구글 갑질 그만’ 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사진 뉴시스
- ▲ 임플란트업체 디오, 2분기 영업이익 111억원... 전년비 110% 증가